



광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핸드볼 남·녀 대표팀 선수들이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결단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생순 신화' 한번 더… 목표는 남녀 동반 우승

광주 아시안게임 핸드볼 대표팀 출사표

한국 남녀 핸드볼 대표팀이 광주 아시안게임 출격을 앞두고 이번 대회에선 반드시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다짐했다.

대표팀은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및 결단식에서 남녀 동반 우승을 가로막을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자신했다.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으로 지난 도하 대회에서 4위에 그친 남자 대표팀은 어울하게 빼앗긴 금메달을 광주에서 꼭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남자 대표팀은 1986년 서울 대회부터 2002년 부산 대회까지 5연패를 거뒀다가 지난 대회에서 상대 선수가 아닌 심판들에 일격을 당했다. 당시 대표팀에서 뛰었던 윤경신(37)의 “신이 와도 이길 수 없었다”는 말은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남자 대표팀은 이끄는 조영신 감독은 “이번에도 우리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올 수 있다. 판정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이

기는 전략을 짰다. 지지지 않고 60분 내내 뛰는 체력으로 철조망 같은 수비를 한 다음 속 공 플레이를 펼쳐 억울한 공격자 파울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자대표팀은 불리한 판정보다 무서운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했다.

이재영 감독은 “충실히 훈련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력 면에선 앞서 있지만 정신력에서 지면 게임을 그르친다. 자만하지 말라고 매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만 아는 편과 판정이 있을 수 있다. 여자팀은 특히 그런 부분에서 정신

력이 흐트러지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며 “안방에서 치러지는 만큼 중국에 유리할 수 있어 걱정되지만 판정에 폐쇄되지 않고 훈련하던 대로만 하면 6연패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은 4강으로 이끌고 대회 MVP에 오른 대표팀 막내 이은비(20)는 “성인 국제종합대회는 처음이라 실감이 나진 않지만 언니들만 믿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과 함께 세계 선수권 준결승전에서 저 많이 울었지만 광주에서 꼭 힘박웃음을 짓겠다”고 덧붙이며 6연속 금메달 행진을 자신했다. /연합뉴스

‘영건’ 노승열 첫날 출발좋네



영건 노승열(19·타이틀리스트·사진)이 스타들의 경연장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 HSBC 챔피언스에서 빛나는 샷을 날렸다. 아시아투어 상금랭킹 1위를 달리는 노승열은 4일 중국 상하이 서산인터내셔널 골프장(파72·7143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뽑아내며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선두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7언더파 65타)에 2타 뒤진

공동 3위에 올랐다.

2009년 PGA 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은 (38)도 3언더파 69타를 치며 공동 9위에 올랐다. 필 미켈슨(미국), 웨스트우드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 양용은은 8번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그대로 흘러 집어넣어 이를 잡아내며 2006년 이 대회 우승 이후 4년 만에 정상에 오를 발판을 마련했다. 우즈

HSBC 챔피언스 무보기 5언더파

선두 몰리나리에 2타 뒤진 3위

를 밀어내고 1인자의 자리에 오른 웨스트우드는 6언더파 66타를 치며 2위에 올라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존심 회복을 노리는 우즈도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5개를 쏟아담아 공동 6위(4언더파 68타)에 이를을 올렸다.

한편 최경주(40)와 김경태(24·신한금융 그룹)는 나란히 이븐과 72타를 쳐 공동 35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연합뉴스

광주 떠나는 상무 꽂찌 면할까

프로축구 광주 상무 불사조가 계임에 지고도 한숨을 들렸다. 골득실 차에서 1점으로 앞섰던 대구 FC가 대패를 하는 바람에 꽂찌에서 탈출해서다.

오는 7일 시즌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광주와의 연고를 마무리하는 상무가 ‘최하위의 불명’에 벗을 발판을 마련한셈이다. .

광주 상무는 지난 3일 광주월드컵경

K리그 대구FC와 승점 동률

골득실 3점 앞서 14위 유지

7일 울산과 광주서 고별전

결과따라 꽂찌여부 판가름

기장에서 열린 전남과의 경기에서 전반 30분 터진 전남 송정현의 결승골로 0-1로 패했다. 대구FC도 울산과의 경기에서 0-5로 대패했다. 경기결과 15위 광주 상무는 14위 대구FC와 나란히 승점 19점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 차에서 3점 앞서면서 꽂찌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로써 K리그 정규시즌 꽂찌는 마지막 경기를 통해 관객님 전망이다. 광주 상무는 7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정규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울산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고, 대구FC도 이날 오후 광양전용구장에서 전남 드래곤즈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 치르게 된다.

한편 광주시 체육회 이사회는 지난 1일 현역 군인들로 구성된 광주 상무불사조 축구단 해단을 의결, 상무팀과의 연고 관계를 옮기면서도 지지로 했다.

대신 광주시민구단인 광주FC가 상무 축구단의 물품 등을 인수인계해 12월 16일 창단식을 갖고 내년시즌부터 본격적인 프로축구팀 차출돼 베스트11을 구성하기로 어려운 처지다.

수석코치를 맡았다가 최근 사의를 밝힌 이강조 감독으로부터 지휘봉을 넘겨 받은 이수철 광주 상무 감독은 “40명 중 20명이 전역했고, 부상선수도 많지만 최선을 다해 꽂찌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시 체육회 이사회는 지난 1일 현역 군인들로 구성된 광주 상무불사조 축구단 해단을 의결, 상무팀과의 연고 관계를 옮기면서도 지지로 했다.

대신 광주시민구단인 광주FC가 상무 축구단의 물품 등을 인수인계해 12월 16일 창단식을 갖고 내년시즌부터 본격적인 프로축구팀 차출돼 베스트11을 구성하기로 어려운 처지다.

김경인 기자 kki@kwangju.co.kr

김인 국수배 바둑대회 강진서 개막

종·일 등 8개국 300명 참가

오늘부터 4일간 열전 돌입

‘영원한 국수’ 김인 9단의 고향인 강진에서 ‘제4회 김인 국수배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가 열린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태국, 호주, 영국, 페란드, 미국 등 8개국 300여명이 참가해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쟁을 펼치게 된다.

대회는 스위스리그 5라운드로 진행되며 남자단체전(4인), 여자단체전(4인), 개인

전(초단~5단)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우승상금은 남자 단체전 300만원, 여자단체전 150만원, 개인전 100만원이며, 8위까지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 대회 둘째날인 6일에는 윤현석 9단 등 6명의 프로기사가 강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다면기(多面棋)를 진행한다.

황호용 강진군비단회회장은 “매년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와 군민바둑대회를 개최하여 바둑 인구의 저변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문화신문부·남철희기자 choul@

광주 상무가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HSBC 챔피언스 무보기 5언더파

선두 몰리나리에 2타 뒤진 3위

를 밀어내고 1인자의 자리에 오른 웨스트우드는 6언더파 66타를 치며 2위에 올라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존심 회복을 노리는 우즈도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5개를 쏟아담아 공동 6위(4언더파 68타)에 이를을 올렸다.

한편 최경주(40)와 김경태(24·신한금융 그룹)는 나란히 이븐과 72타를 쳐 공동 35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연합뉴스

김인 국수배 바둑대회 강진서 개막

종·일 등 8개국 300명 참가

오늘부터 4일간 열전 돌입

‘영원한 국수’ 김인 9단의 고향인 강진에서 ‘제4회 김인 국수배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가 열린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태국, 호주, 영국, 페란드, 미국 등 8개국 300여명이 참가해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쟁을 펼치게 된다.

대회는 스위스리그 5라운드로 진행되며 남자단체전(4인), 여자단체전(4인), 개인

전(초단~5단)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우승상금은 남자 단체전 300만원, 여자단체전 150만원, 개인전 100만원이며, 8위까지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 대회 둘째날인 6일에는 윤현석 9단 등 6명의 프로기사가 강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다면기(多面棋)를 진행한다.

황호용 강진군비단회회장은 “매년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와 군민바둑대회를 개최하여 바둑 인구의 저변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문화신문부·남철희기자 choul@

HSBC 챔피언스 무보기 5언더파

선두 몰리나리에 2타 뒤진 3위

를 밀어내고 1인자의 자리에 오른 웨스트우드는 6언더파 66타를 치며 2위에 올라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존심 회복을 노리는 우즈도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5개를 쏟아담아 공동 6위(4언더파 68타)에 이를을 올렸다.

한편 최경주(40)와 김경태(24·신한금융 그룹)는 나란히 이븐과 72타를 쳐 공동 35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연합뉴스

김인 국수배 바둑대회 강진서 개막

종·일 등 8개국 300명 참가

오늘부터 4일간 열전 돌입

‘영원한 국수’ 김인 9단의 고향인 강진에서 ‘제4회 김인 국수배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가 열린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태국, 호주, 영국, 페란드, 미국 등 8개국 300여명이 참가해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쟁을 펼치게 된다.

대회는 스위스리그 5라운드로 진행되며 남자단체전(4인), 여자단체전(4인), 개인

전(초단~5단)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우승상금은 남자 단체전 300만원, 여자단체전 150만원, 개인전 100만원이며, 8위까지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 대회 둘째날인 6일에는 윤현석 9단 등 6명의 프로기사가 강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다면기(多面棋)를 진행한다.

황호용 강진군비단회회장은 “매년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와 군민바둑대회를 개최하여 바둑 인구의 저변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문화신문부·남철희기자 choul@

HSBC 챔피언스 무보기 5언더파

선두 몰리나리에 2타 뒤진 3위

를 밀어내고 1인자의 자리에 오른 웨스트우드는 6언더파 66타를 치며 2위에 올라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존심 회복을 노리는 우즈도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5개를 쏟아담아 공동 6위(4언더파 68타)에 이를을 올렸다.

한편 최경주(40)와 김경태(24·신한금융 그룹)는 나란히 이븐과 72타를 쳐 공동 35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연합뉴스

김인 국수배 바둑대회 강진서 개막

종·일 등 8개국 300명 참가

오늘부터 4일간 열전 돌입

‘영원한 국수’ 김인 9단의 고향인 강진에서 ‘제4회 김인 국수배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가 열린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태국, 호주, 영국, 페란드, 미국 등 8개국 300여명이 참가해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쟁을 펼치게 된다.

대회는 스위스리그 5라운드로 진행되며 남자단체전(4인), 여자단체전(4인), 개인

전(초단~5단)으로 나뉘어 펼